

가가번 세공소

가가번 세공소는 16세기 후반에 가가번(현재의 이시카와현 및 도야마현)에서 설립된 공예 공방입니다. 가가번을 통치했던 마에다 가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에도 시대(1603~1867)가 끝나고 1868년에 폐쇄될 때까지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서로 경쟁하며 공예품과 장식품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공방의 초기 목적은 다른 번의 공방과 마찬가지로, 에도 시대 이전 약 100년에 걸친 전란의 시대에 무기 제조와 수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란이 진정되자, 이전처럼 무기를 제작하거나 수리하는 공방의 긴급한 필요성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세가 불안정했던 상황에서 가가번의 초대 번주였던 마에다 도시이에(1539 경~1599)는 혹시라도 다시 전란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공방의 지속적인 운영을 명령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흐르면서 분쟁 발생의 위험이 점차 감소하자, 공방 장인들의 활동은 보다 예술적인 작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가번 제3대 번주 마에다 도시쓰네(1594~1658)는 공방에서의 장식미술과 공예기술 연마를 적극적으로 장려했습니다. 도시쓰네의 영향으로 공방은 공식적으로 '오사이쿠쇼'로 불리게 되었으며, 다양한 분야의 숙련된 장인들이 채용되었습니다. 성 아래 도시로 발전한 가나자와에는 전국 각지에서 장인들이 모여들었으며, 상감과 가가마키에 등 다양한 공예기술이 이 공방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마에다 가문은 단순히 장인들을 초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가나자와에 정착시켜 작업에 종사하도록 했습니다. 1600년대 가가 공예기술의 발전에는 도시쓰네뿐만 아니라, 제5대 번주 마에다 쓰나노리(1643~1724)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부인 마에다 도시쓰네의 손에서 자란 쓰나노리는 예술에 대한 조예가 깊었으며, 뛰어난 공예 기술을 연구하기 위해 공예품의 견본과 작품들을 모아 방대한 컬렉션인 '햏코히쇼'를 제작했습니다. 쓰나노리는 장인들이 공방 근처에서 공동생활을 하도록 하여 공예 발전을 촉진했습니다. 또, 특히 뛰어난 작품을 제작한 장인에게는 포상으로 보답하기도 했습니다.

가가번 세공소가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된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전문기술에 대한 지식은 대대로 자손에게만 전수되며 가족 내에서만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가번 세공소에서는 칠기, 그림, 금속공예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작업을 했습니다. 그 결과, 서로 다른 공예기술이 융합되어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가번 세공소를 대표하는 작품 중 하나로 에도 시대 후기에 제작된 가마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는 70명 이상의 장인들이 소속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각자의 지혜와 기술을 모아 이 정교한 작품을 완성해냈습니다. 검은 옷칠 바탕 위에 금

마키에, 나전세공, 금 상감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모란덩굴무늬와 마에다 가문의 문양인 우메바치가 전체적으로 장식되었으며, 금속장식 디자인에도 정교한 세공이 가미되었습니다. 내부에는 금색 바탕에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나전칠기의 장식이 더해져 있습니다.

1867년에 도쿠가와 막부가 멸망하고 메이지 시대(1868~1912)가 시작되면서 새 정부는 정치체제의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여러 다이묘들은 영지와 권한을 박탈당했고 번은 현으로 개편되었는데, 가가번의 일부는 1872년에 이시카와현이 되었습니다. 250년 이상 지속된 가가번 세공소도 1868년에 완전히 폐쇄되었습니다.